

『感恩寺址 東三層石塔』, 『羅原里 五層石塔』

부처님 眞身舍利 移運式

文化財管理局에서는 중요 石造 文化財의 補修工事의 일환으로 전국 중요 石塔의 解體 工事を 실시하던 중 慶州 感恩寺址 東三層石塔(國寶 112號)과 羅原里 五層石塔(國寶 39號)에서 出現한 舍利의 移運式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移運式이란 부처님과 信仰의 對象을 옮겨 모시는 儀式이다. 이번 舍利移運式은 舍利를 遺物의 概念에서 信仰 對象으로의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와 이를 위한 政府와 佛敎系간에 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移運 對象은 感恩寺址東三層石塔에서 收拾된 舍利 54顆, 水晶製 舍利瓶 1點, 金製뚜껑 및 金製 받침 각 1點과 羅原里五層石塔에서 收拾된 舍利 15顆, 金製小佛像 1軀이다.

舍利 移運式은 1996년 7월 11일 오전 10시 德壽宮 內 文化財管理局에서 먼저 文化體育部 次官과 大韓 佛敎 曹溪宗 總務院長 間에 舍利 引繼式이 이루어지고, 移運에 따른 宗團이 주관하는 儀式順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移運 儀式이 끝나면 바로 行列로 이어지는데 移運 행렬은 國방부 취타대를 선두로 다섯개의 方位를 표시하는 五方幡, 舍利를 모시는 가마(輦)등이 이어지고 그 뒤로 300여명의 스님과 1천여 명의 信徒들이 따르는 등 장엄한 대열을 이루면서 大漢門을 나와 시청 앞, 을지로, 광고, 보신각을 거쳐 조계사에 이르게 된다.

등근 구슬의 형태로 된 舍利는 조계사 대웅전에 奉安되어 7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親見할 수 있게된다. 또 이곳에는 舍利莊嚴具 사진이 展示된다.

본 舍利는 國立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研究室의 保存處理全擔팀의 과학적 정밀 收拾에 의해 각각의 金銅舍利函 내부에서 13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그 신비롭고 영롱한 자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舍利는 石塔의 생명이기 때문에 曹溪宗 親見 法會 後 해당 石塔을 復元할 때 다시 奉安할 것이며, 나머지 유물은 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 科學的 保存處理를 한 후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感恩寺址 東3層石塔 全景



東3層石塔 收給 水晶製 舍利瓶, 金製 뚜껑 및 받침



東3層石塔 收拾 舍利 54顆



羅原里 5層石塔 收拾 金製 小佛像



羅原里 5層石塔 收拾 舍利 15顆